



價 值 中 立

노윤래
칼럼니스트



-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장
-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는 용기의 정치가”

영국에는 위대한 인물이 많다. 문호 셰익스피어, 물리학자 뉴턴, 진화론자 다윈, 영국에 세계 패권을 안긴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치가 처칠 등이다.

처칠은 소년 시절 품행이 나쁘고 학교 성적도 최하위였으나 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되었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정계에 진출한 처칠은 독선적 성격에 고집불통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영국인들은 그에게 나라를 구한 국민적 지도자로 아낌없는 최고의 경의를 보내고 있다.

처칠의 위대함은 그가 절망에 빠진 영국인에게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안겨주었으며, 히틀러의 광기에 맞서 지도자로서의 의지와 통찰력을 보여준 탁월한 지도력에 있다. 처칠의 전기 작가 보리스 존슨은 처칠이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는 용기의 정치가”라고 쓰고 있다.

그는 전시내각을 이끌면서 수시로 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처칠은 문장과 언변이 뛰어난 재사였다. 수상 직을 수락하는 의회 연설에서 “내가 국가에 바칠 것은 오직 피와 땀과 눈물 밖에 없다.”고 했고, 1941년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는 첫 마디로 “I am a semi-American”이라는 인사말을 하여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처칠의 모친이 미국인임을 밝힌 것이다.

종전 직후 소련의 야심을 누구보다 일찍 간파한 처칠은 ‘철의 장막’으로



가려진 소련의 음흉한 정치 공작을 직시하라고 서방 세계에 경계했다. 그는 뛰어난 문장으로 2차 세계대전의 회고록 「승리와 비극」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말년에 처칠은 기자와의 대담에서 평생 두 번 놀란 일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영국 해군의 전함(The Prince of Wales)이 일본 항공기의 공격으로 침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와 휴전협정 서명을 며칠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포로 석방 소식을 접했을 때 라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기보다 어렵다고 한국의 정치 현상을 혹평했지만 이승만의 철저한 반공 정신과 뛰어난 정치력에 경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가 타계했을 때 영국은 첫 민간인에 대한 국장(國葬)을 치르기도 했다.

과학이 정치 이념에 유착할 때 참담한 결과 초래

리센코(T. D. Lysenko)는 환경 조건의 변화로 생물의 유전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소련의 육종학자이다. 유전학은 20세기 초 유전자라는 개념

이 등장하면서 멘델의 유전법칙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왔다.

20세기 중반 리센코는 춘화처리법(vernalization)을 이용해 농작물의 재배 기간과 수확 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생산량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혁신적 농법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유전 이론을 주장해 획득형질의 유전과 환경에 따른 생명체의 가변성을 인정함으로써 유전자의 고정불변의 성격을 주장한 멘델주의 유전학과 대립했다.

문제는 리센코가 그의 유전이론이 마르크스-레닌의 철학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사상과 일치하는 반면에 멘델의 유전학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과학이라며 이를 규탄했다는 점이다. 소련 정부는 리센코의 주장을 수용해 멘델의 유전학을 대학에서 연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스탈린의 신임을 얻은 리센코는 영터리 이론으로 소련의 농업에 큰 타격을 입혔고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더불어 그의 학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퇴출하게 되었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다. 과학이 정치 이념에 유착

할 때 그 피해는 정경유착보다 더욱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는 미래의 해석에 도움이 되기 위해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갈망하는 탐구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미래란 과거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와 닮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순간적인 찬사를 가져다주는 에세이로서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자산이 되도록 썼다.”라고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역사의 서문에서 투키디데스는 언급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관찰했던 전쟁의 전반적인 현상이 역사에 되풀이될 것으로 판단해 오늘날 우리가 국제 관계라고 부르는 현상의 근본적이고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밝혔다.

최상의 energy mix는?

오늘날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가장 큰 자연 조건은 환경과 에너지 문제이다. 기후 변화는 매년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삭감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와 같은 긴박한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개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재생에너지와 LNG 개발을 확대하며 위험한 원전을 중지하겠다는 탈원전 계획을 선언한 것이다.

석탄은 분진과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유독 가스를 배출하고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발전용 연료로서의 사용이 적극 억제되어야 하지만, LNG도 주성분이 탄소가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코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란 점을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재생에너지는 깨끗하지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발전 비용이 매우 높고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산업 국가로서 재생에너지처럼 분산형 전원 설비로서는 산업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전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지리적 여건이 매우 나쁘다. 풍력 발전에 필요한 바람이 충분하지 못하고 여름에는 긴 장마와 불순한 일기로 태양력 발전의 이용률은 20% 미만이어서 재생에너지의 개발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원전의 위험성으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의 참사를 예로 들고 있다. 체르노빌은 격납용기가 없는 영터리 발전소(플루토늄 생산이 주목적)이며, 후쿠시마 원전은 동일본 대지진(규모 9.2 이상)에도 구조물은 안전성을 유지했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 해일)로 비상디젤발전기와 모든 배터리 등 비상 전원이 모두 침수되어 원자로 내부의 잔열(decay heat)을 냉각시킬 수 없어 일어난 참사였던 것이다.

후쿠시마 참사는 해수를 이용해 원자로를 냉각시켰다면 노심 용융을 방지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발전 설비의 취약보다는 설비를 관리하는 인력이 문제였음을 직시해 안전문화의 미비점을 보완했어야 했다.

우리 정부는 최상의 energy mix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을까? 🤔